

2020학년도 대학평의회 의사록




2021.1.

한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회의 심의[자문] 내역

No.	심의안건	심의결과
1	• 한양대학교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21학년도 본예산 자문	• 자문 완료
2	• 부속병원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21학년도 본예산 자문	• 자문 완료

첨부 1. 2020학년도 제11차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1부

대학평의회 의사록 (2020학년도 11차 회의)		의장	
일시	2021. 1. 29(금) 16:00	장소	신분관 2회의실
참석 (12명)	[교수평의원] 조태제, 이동호, 계명찬, 오제훈, 박경진 [직원평의원] 신남호, 안종길, 박종림 [학생평의원] 박정언(S), 박세원(E), 안재익(G) [외부평의원] 홍진원		
불참 (2명)	[교수평의원] 이훈 [외부평의원] 구자경		
▣ 회의진행 1. 개회 의장이 대학평의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2. 안건1 (대학평의회 의원 구성 등) 1) 의장이 2020년 9월 25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대학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제1항이 개정되어, “평의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부분이 “대학평위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로 변경되었다. 이에 조교를 구성단위에 추가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다. 2) 6 의원이 현재 학생 대표는 학부에서 2명, 대학원에서 1명을 추천하고 있는 바, 조교는 대부분이 대학원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교를 별도로 구성단위로 추가하여 대평의원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다. 3) 의장이 그러면 구성단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대학원 학생회에서 대학평의회 의원을 선출할 때에는 법령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대학원 학생회장이 조교 구성조직의 대표와 협의를 해 달라고 말한다. 4) 의장이 기타 예산 자문외의 기타 안건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말하다. 5) 2 의원이 대학원 연구지도 학점에 관한 기존의 대학원측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 추가 답변을 요청했으면 한다고 말하다. 6) 5 의원이 기존의 연구마일리지제도 사실상 폐지에 관해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 바 추가 답변을 요청했으면 한다고 말하다. 이점에 관해서는 총장과 대평의원 간담회에서 총장께서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라고 말하다. 7) 의장이 대학원과 교무처에 관련 답변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다. 3. 안건2 (한양대학교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21학년도 본예산 자문) 1) 의장이 한양대학교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21학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2) 이상용 기획처장이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21학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다. 3) 강범수 예산팀장이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21학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다. 4) 한진규 기획예산팀장이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21학년도			

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다.

- 5) 1 의원이 ERICA 캠퍼스의 미래자산기금을 말씀해주셨는데 미래자산기금이라는 것이 경기 티피 매각한 대금 우리의 기준으로 되어있는 건지 묻다.
- 6) 한진규 기획예산팀장이 그렇다고 답하다.
- 7) 1 의원이 경기 티피 매각 한 게 제가 알기로는 615억 매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성당 매각이 예정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기금의 액수가 715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기 티피 매각함으로 인하여 벌써 매각관련으로 소진한 금액, 지출한 금액이 제가 알기론 기숙사, 최근에 게스트 하우스 124억 그리고 은행 차익금, 서울 캠퍼스에서 빌린 값, 그러면 현재까지 해서 얼마인지 묻다.
- 8) 한진규 기획예산팀장이 처음에 2019년도에는 말씀하셨듯이 614억이었고 기숙사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차익금 상환 기숙사를 위해서 차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익금 상환, 게스트하우스에서 갚은 금액 중 남은 돈은 290억정도 있다고 답하다.
- 9) 1 의원이 기숙사 차익금은 얼마정도인지 묻다
- 10) 한진규 예산팀장이 게스트하우스가 124억이고 나머지는 180억 정도가 있다고 답하다.
- 11) 1 의원이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 규모가 다른데 전입금 액수는 다른지 묻다.
- 12) 이상용 기획처장이 업무처리를 서로 조정한 부분이 있으며 서울 캠퍼스는 전기, 수도 별도로 29억 정도 받고 시설비 쪽에서 받고 있다고 답하다. 에리카는 금년에 서울과학다지탈 해결책을 동일할 예정인데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있다고 답하다. 30억 정도가 별도로 들어오고 학교가 구매한 리스트 중에 일부를 산학협력단 예산을 사용해서 직접구매를 하고 17.5억원은 대응비, 교내 연구 사업비부분을 학교와 산학협력단이 각각 어느 회계에서 대응을 할지 계산을 한 다음에 차감금액을 준다고 답하다. 대다수가 학교에서 넘어오는 석 박사 장학금 외에 산학협력단에서 20억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넘어와서 학교 쪽에 17.5억 정도 수학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 부분은 통일을 하려고 한다고 답하다.
- 13) 한진규 기획예산팀장이 서울에 전체적인 수익금은 따져 봐야하며 에리카는 본예산시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보면 알겠지만 전년 수준에 비해 많이 늘렸고 총액을 일단 확정해 놓고 가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직접지원을 하지 않아 간접 비를 비율을 많이 빼다보니 여러부분에서 보다 보니 전출보다는 직접지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답하다. 현재 에리카는 전부 전입금에다가 넣다보니 서울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보이지만 이러한 차이는 있다고 답하다.
- 14) 1 의원이 다 고려하면 규모비율로 유사하다는 말씀인지 묻다.
- 15) 강범수 예산팀장이 직접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에리카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것을 총 예산에 전입금을 잡은 것이고 서울은 직접 산학협력단에서 내는 것이라 교비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빠져있다고 답하다.
- 16) 한진규 예산팀장이 비교하면 결국 결과적으로 비슷하다고 답하다.
- 17) 2 의원이 저희가 대학원중심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21학년도 예산에서는 대학원육성이라던가 교수나 대학원생의 연구력을 증진시키거나 관련된 쪽으로 예산을 정책기조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다. 그런데 교원업적평가 인센티브가 대학평의원에서 인센티브를 올려달라고 40억 정도를 이야기를 했지만 하였지만 25라는 숫자가 적힌 건지 이유를 묻다.
- 18) 이상용 기획처장이 46억이라고 하신적은 없고 서울캠퍼스 27.5억 에리카가 8억 그래서 합치면 35.5억 정도 된다고 말하다. 서울캠퍼스는 작년에도 본 예산기준으로 25억 정도 잡았는데 그때 의장님께서 올려달라고 말씀하셨고 12%정도 올려드렸다고 말하다.

- 19) 2 의원이 대학원수입이 늘고 대학원 지원이나 연구력 지원 등에 대한 기초라는 것이 있어야 하지만 예산안을 보시게 되면 전년과 동일하게 25.0으로 맞추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묻다.
- 20) 이상용 기획처장이 원래 본예산과 추경은 항상 본예산은 보수적으로 잡고 추경에서 수입현황을 보고 늘려서 적는다고 이야기 하다. 2020년도에서도 25억을 잡고 있었고 대학평의원 의원님들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그때도 동일한 답변을 드렸다고 말하다. 기획처는 전반적인 예산만 그림을 그리고 교무처의 요청이 있으면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고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어렵고 거의 모든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하다. 하지만 BK준비와 대학원 교육 강화, 교원 인센티브 등을 위해서 교무처에서 2.5개 추가 예산을 요청하였고 직원노조에서도 직원들에 복지 관련한 예산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거절하였다고 말하다. 학생회는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지만 거절하였으며 오로지 교수님들의 인센티브만 2.5억 원을 교무처에 요청해서 맞춰드렸고 2021년에도 코로나가 아직 극복이 안 된 상황임을 말하다. 일단 본예산은 2020년 처음에 잡은 본예산 기준으로 25억을 잡았다고 답하다. 일단 보수적으로 잡고 실제 집행하는 시점은 추경이후에 그 때 교무처에서 요청하면 교비가 얼마정도 있는지, 연구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한 후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할 것 이고 여기서 줄었다고 해서 교수님들의 의욕을 꺾기위한 것은 아니라고 답하다. 다만 처음부터 교수님들만 늘리는 것으로만 잡게 되면 학생들의 설득이 어려워진다고 답하다.
- 21) 2 의원이 2020년에 원래 예산을 했던 것보다 2.5억이 늘어나서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21년도 예산은 것에서 문제점을 말하다. 저희 대학평의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한양대학교에서 BK와 경쟁되는 대학들과 비교해보아도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늘려달라고 했을 때 다음번 대학평의원 회의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올 것이고 동결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하다.
BK경쟁력은 논문에 있고 학교가 나가야 할 방향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해서 BK 대학원을 따오고 수입이 들었다면 우수한 교수들을 사기를 높이는 방법은 임금을 올리거나 인센티브를 일단 추경을 통해서 27.5로 올렸다고 치면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다시 2020년 기준으로 회기를 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답하다.
- 22) 이상용 기획처장이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은 어쩌면 교수님들보다도 직원들일 것이고 복지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했다고 말하다. 노조의 강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말고 추경에서 봐서 하겠다라고 했으며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국제교육원에서 55억 수입이 줄었고 장학복지 수입도 줄었다고 말하다. 일단 보수적으로 잡을 수 없으며 직원과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구조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시고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서 책정을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하다.
- 23) 2 의원이 21년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추경을 굳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 예상대로 간다는 것이고 많은 예산이 결코 아니고 BK에서도 중간평가에서도 성과도 좋았으며 이런 인센티브도 적당히 베풀지 않게 되면 중간 평가 때 위험해질 수 있으며 교원들이 질 높은 연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높여야 한다고 답하다.
- 24) 이상용 기획처장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함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 하다.
- 25) 의장이 물가가 상당히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작년에 한번 2% 인상되었을 뿐 10여년간 인상이 없었고 교수신문에 전국 대학 부교수, 조교수 평균연봉현황이 공개가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르며 우리대학 교수의 급여가 경쟁대학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다. 국회의원의 요청에 의해 평균연봉자료를 제출할 때 기획처가 관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되

- 는 바, 그것에 급여, 상여금 외에 기타 어떠한 것이 또 포함되어 있는지 묻다.
- 26) 이상용 기획처장이 자세히 신문은 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법정 그 외에는 별도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7) 의장이 인센티브는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다.
- 28) 이상용 기획처장이 이것을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계산 한 건지 최종 급여를 가지고 재무적 관점에서 한 것 인지 어떤지를 모르겠다고 답하다.
- 29) 의장이 국회회의실에서 요구할 때 그 자료를 누가 주었는지 기획처가 제출했는지를 묻다.
- 30) 김범수 기획예산팀장이 보통 그것을 제출하라고 할 때 표준 급여 기준 안 호봉 이렇게 해서 제출을 요구하라는 국회의원도 있고 표준 호봉 이렇게 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분들도 있다고 답하다.
- 31) 의장이 기획처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관여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 32) 김범수 기획예산팀장이 교원부서 얼마를 주었는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다고 답하다.
- 33) 의장이 국회의원실에서 각 대학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교수신문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며, 그 대상은 전문대학 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다.
- 34) 이상용 기획처장이 제출 자료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국회에 요구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묻다.
- 35) 의장이 그 자료를 기획처가 주지 않았는지 다시금 묻다.
- 36) 이상용 기획처장이 준적이 없다고 답하다. 교무처에서 주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답하다.
- 37) 의장이 교무처에서 주었는지 묻다.
- 38) 이상용 기획처장이 그것은 모른다고 답하다.
- 39) 의장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처가 자료제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 40) 이상용 기획처장이 기획처에 온 이후로 본적은 없다고 답하다.
- 41) 김범수 기획예산팀장이 공시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고 별도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지만 급여자료는 만약에 요청이 오면 총장님까지 보고하고 전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부서에 전달되었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고 답하다.
- 42) 의장이 국회의원실에서 각 대학의 요구해서 받는 자료인데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처에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묻다.
- 43) 김범수 기획예산팀장이 제출 안하는 곳도 있다고 답하다.
- 44) 이상용 기획처장이 저희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하다.
- 45) 3 의원이 모르고 아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교무처에서 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 46) 의장이 느낀 것은 우리가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만약에 드려야 할 텐데 우리는 서울하고 에리카가 급여수준이 같기 때문에 인센티브에서는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서울 캠퍼스는 의대가 포함되어 있으니 봉급이 조금 올라갔을 것이라고 답하다. 그럼 사실상 급여수준이 에리카와 같다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상당히 우리 경쟁대학하고 비교할 때 연고대와 비교하면서 적립금 현황을 보면 연세대, 고려대와 비교표도 없이 수준이 우리가 낮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연구력이 뛰어난 교수들한테라도 인센티브라도 많이 줘서 정말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금전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수업적 평가 인센티브를 낮은 수준으로 잡는 것인지 묻다. 정말 일 열심히 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하겠다 하면 정말 좋은 잡지에 논문을 내시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더 그러면 훌륭한 사람들이 한양대를 찾아 올 것이라고 말한다.
- 47) 이상용 기획처장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하다.

- 48) 의장이 연구 인센티브 부분은 연구력 장려, 우수 교수 유치 뿐만아니라 급여 보전의 성격도 있을 수 있는 바 현재의 급여수준을 고려할 때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그 동결이나 감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예산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산상의 제약으로 모두의 급여를 인상할 수 없다면 훌륭한 연구 성과를 얻어 대학 평가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국책사업 등의 유지에 커다란 공을 세우는 교수에게라도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 49) 이상용 기획처장이 그러면 어디를 줄여야 할지 묻다.
- 50) 의장이 처장님께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하다.
- 51) 의장이 휴회를 선언하다. (잠시 후) 의장이 회의 속개를 선언하다. 의장이 교수업적평가 인센티브 부분을 금년 추경예산 27.5억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에서 책정해 달라 요청하였고 만약에 절차적 진행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없다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 말한다.
- 52) 이상용 기획처장이 교원업적인센티브 관련한 서울캠퍼스에 증장기 플랜을 2020년 추경기준 27.5억 원 이상 기준으로 기획처와 교무처가 작성 후 대학평의원회에 2월 25일까지 보고한다고 답하다.
- 53) 의장이 기획처가 교무처와 협의해서 결정 한 후에 연락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묻다.
- 54) 1 의원이 스케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55) 의장이 다음 대학평의원 때까지 교무처와 협의해서 알려달라고 말한다.
- 56) 이상용 기획처장이 그때까지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하다.
- 57) 의장이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부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이며 수입창출에 대해서 등록금 외에 기타 수입 항목이 법인에 적립금, 병원 전입금, 기부금, 산학협력단에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법인전입금 부분이 줄어드는 것인지 묻다.
- 58) 김범수 예산팀장이 추경 때 20억 이상 들어왔고 저희가 기타교육부대수업을 잡았다가 추경 때 반영해서 현재 111억인데 거기서 법정기부원유입이 올라간 부분을 포함하고 차기 추경 때 더 전입할 부분이 있다고 답하다.
- 59) 의장이 법정 100%가 아닌지 묻다.
- 60) 김범수 예산팀장이 58% 된다고 답하다. 주요대학은 50-60% 사이정도가 된다고 답하다.
- 61) 의장이 우리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수준은 되어야 하고 전입금 부분은 오늘 회의를 하면 회의 결과를 문건으로 만들어서 대학본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전입금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채우라고 항목이 들어갈 것이고 그 내용을 대학본부에서 법인에 공문으로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한다.
- 62) 김범수 기획예산팀장이 말씀해 주신대로 하겠다고 답하다.
- 63) 의장이 부속병원 전입금은 금년에도 예년처럼 매년 일정 금액 증가 한다는 것인지 묻다.
- 64) 김범수 기획예산팀장이 매년 11억씩 늘고 있고 더 해서 교원증가라고 답하다.
- 65) 의장이 기부금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묻다.
- 66) 김범수 기획예산팀장이 그렇다고 답하다.
- 67) 의장이 다른 대학에서 보면 기부금을 유치한 교직원들이 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유지하는 대학도 있고 사립학교법에 보면 교액의 기부금은 납부한 회사라던지 개인이 있을 경우 그분의 이름을 정관에 명시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기릴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방안 등을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기부하시는 분들이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획처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 답하다.
- 68) 이상용 기획처장이 의장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하다.
- 69) 의장이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다. 그리고 산학협력단 전입금은 줄어드는지 묻다.
- 70) 이상용 기획처장이 2021년에 전입을 받아서 집행하던 전자도서 부분을 직접 집행해야 산학협력단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하게 되었다고 답하다.
- 71) 의장이 산학협력단 예결산에 대해서 학교에서 전혀 감독하고 있지 않은지 묻다.
- 72) 김범수 예산팀장이 감독하고 있고 기획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통과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부터는 추경과 실제보고를 학교와 동일하게 의결하기로 했다고 답하다.
- 73) 의장이 주차장에 관련해서 교수 등의 경우 월정으로 내는 것은 동일하지만 행사 시 내는 것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묻다
- 74) 김범수 기획예산팀장이 인력감축도 있고 최저 인력 때문에 실제로는 사전등록 디지털 등록해서 인력 감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단가 상승이 있다고 답하다 또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는데 확대 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다
- 75) 1 의원이 에리카 교원이 서울에 오게 되면 주차비 내는 것 인지 묻다.
- 76) 김범수 기획예산팀장이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되어서 나간다고 답하다.
- 77) 2 의원이 에리카캠퍼스에서 서울 캠퍼스로 출장을 오게 되면 지금은 돈을 내야하는데 그러한 부분 개선 부탁드립니다 말한다.
- 78) 김범수 기획예산팀장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다.
- 79) 4 의원이 개별 항목보단 전체적으로 수입예산을 증가시킬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우리가 등록금 동결이 처음 나왔을 때는 학교가 그동안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등록금동결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등록금 인상의 여지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교는 어떻게 수입 예산을 어떻게 늘릴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한다. 그것이 없으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가르 칠 수 있는 교원과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직원들에 대해서 지원해야하지만 동결시켜버리면 한양대학교 발전에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이 급여수준에서는 직원들도 더 이상 한양대학교에 올 수 없고 마찬가지로 우수한 교원들도 유치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예산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80) 의장이 우리학교 학생들 등록금 부담률이 타 대학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 전반적으로 수입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말한다.
- 81) 신경훈 기획홍보처장이 관련해서 총장님께서도 최근에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교육대학 기능으로써 교육 연구, 봉사를 준비했었는데 이번엔 산학협력을 통한 비즈니스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산학협력을 통해 수익을 좀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술개발이 실질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하다.
- 82) 2 의원이 그 부분 중요하지만 한양대학교가 과거의 명성을 되보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조금 챙겨야 하지 않나 라고 말한다.
- 83) 김범수 기획예산팀장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잘 닿지 않는 부분들이었다. 더 잘 해야하고 창업과 기술이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답하다.
- 84) 2 의원이 한양대학교 신문방송/연극영화 미디어 전략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고 답하다. 쉽게 유튜브나 방송을 만들어야하고 수익을 만들어야 하며 이렇게 가면 계속 경쟁자 보다 뒤처지게 되어있다고 말한다. 어떤 것이 수익이 되는 것인지 기획처에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 85) 5 의원이 대학원에 대해서 수입이 늘고 했으면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특별히 전문특수 대학원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시는 건지. 2021년 예산 일반대학원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 묻는다.

- 86) 김범수 예산팀장이 BK를 위해서 관련학과에 장학금으로 책정 되어있고 전년도에 비해 3% 인상을 시킬 예정이라도 답하다. 교원도 늘어나서 서울캠퍼스를 53억을 집행했고 1.5배 인상하려고 한다고 답하다.

AI 대학 지원사업은 실제로 교비가 10억 정도 들고 있으며 기본적인 사항이고 특수대학원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1억 정도 책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원율을 높이고 전임교수가 특수대학원 수업을 어느 일정수준으로 하면 RC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홍보를 시켜서 총원율과 전임교원들이 특수대학원에 수업을 많이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BK 관련된 주요사업은 장학금 부분에선 일반대학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첨단강의실 육성은 전부다 해당되고 있다고 말한다. 라이팅센터는 대학원생만을 위한 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위원들을 구축할 예정이고 커리어 개발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관련 프랜들은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업무적으로 구조조정과 인력조정을 해야 하며 훨씬 더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하다.

- 87) 1 의원이 수입현황 예산이 사실 5,685억이 잡혀있는데 늘어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다른 부분이 늘어 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관리운영비, 고정자산비 이런 부분이 비율자체가 너무 크다고 말한다. 결국은 건물 짓고 관리하는 것이 비용이 다른 대학 예산을 보다 높다고 말한다.

- 88) 김범수 예산팀장이 건물을 짓게 된다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금은 혼합이 되고 수입으로 잡힌다고 말한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빌딩을 위해서 다른 곳을 줄이거나 아끼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 다만 관리비는 올라간다고 말한다.

- 89) 1의원이 다른 것은 다 그대로인데 건물 짓기 위해 기금을 인출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돈으로 건물을 짓고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건지 묻는다.

- 90) 김범수 예산팀장이 그런 부분도 있고 수입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답하다.

- 91) 1 의원이 정말 예산이 늘었으면 보수라던가 인센티브가 그 비율만큼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 것이 아닌지 묻는다.

- 92) 김범수 예산팀장이 보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답하다. 호봉 인상도 0.7정도 된다고 말한다.

- 93) 1 의원이 건축물 관리비 해서 예를 들자면 2021년도는 예산을 여유 있게 잡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2020년도의 인문대 외벽공사가 4억8000천만이 잡혀있고 그리고 학생복지관은 7,92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외벽공사이지만 금액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이유를 묻는다.

- 94) 이상용 기획처장이 인문대 교수님들의 불만과 원성이 많았다고 말한다.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다보니 20억이 든다고 말한다. 기초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인문대 교수님들과의 협의를 한 것이 무엇이나면 어떤 수준의 외벽공사로 하는 것으로 하고 5억 안에서 진행하는 사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답하다.

- 95) 김범수 기획예산팀장 5년 전부터 요구사항이며 코로나와 온도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을 내린 것 이라고 답하다.

- 96) 의장이 기계관 신축공사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C기금은 무엇인지 묻는다.

- 97) 이상용 기획처장이 기계공학부와 의과대학에서 마련한 기금이라고 답하다.

- 98) 의장이 해당 RC가 마련한 기금인지 묻는다.

- 99) 이상용 기획처장이 약정을 받은 기금이 있고 현금이 들어 온 것은 현재 30억 있습니다.
- 100) 의장이 지하주차장 같은 건물은 학교비용으로는 몇 프로 들어가는 것인지 묻다.
- 101) 이상용 기획처장이 기획처에서는 적어도 50%에서는 RC에 자체 기부금으로 마련하라고 요구는 하지만 결국에는 70-80%하게 되어있다고 말한다.
- 102) 의장이 토목공사를 통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 연구자 유치, 좋은 연구 환경 마련, 연구 네트워크 구축, 자료와 정보의 충실화 등이 더욱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한다. 대규모 건설 공사 계획을 할 때 의사 결정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묻다.
- 103) 이상용 기획처장이 보통 RC나 학과나 주체 요청을 한다고 답하다.
- 104) 의장이 의사결정과정에서 RC가 요청하면 본부에서 수리를 하는지 묻다.
- 105 이상용 기획처장이 맞다고 답하다.
- 106) 의장이 스텝들과 상의를 해서 정해진 것인지 묻다.
- 107) 신경훈 기획홍보처장이 건물을 짓다보니 고정비용도 증가하고 학교 운영지원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맞고 물론 경영진이 계획을 하곤 하시지만 전체적인 큰 계획 없이 어디선가 강하게 들어오고 기금이 어디선가 마련이 되면 바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물론 공업센터를 보면 건물에서 어떻게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실까 생각이 들어 지은 건 맞지만 이렇게 되면 교비가 또 투입되고 관리비용이 들고 어떤 것을 지어야할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계획이 없이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답하다. 교비가 투입된 건물에서 학과에서 독점적으로 경영되는 문제도 있다고 답하다.
- 108) 의장이 건물 관리 등의 문제는 관리처장님과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해야 하겠다고 말한다.
- 109) 4 의원이 많은 게스트 하우스도 매입을 했고 그리고 산학협력단이 조성하여 건물도 건설하게 되고 그러면 에리카 쪽에서는 사업들이 완공되고 나면 내년 대관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묻다.
- 110) 신경훈 기획홍보처장 현재 공사 예산 부분은 산학협력단 단지조성사업은 1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하다.
- 111) 4 의원이 매년 10억정도 한다는 말씀인 것인지 묻다
- 112) 의장이 매년 수입을 조금이라도 남겼으면 한다고 말한다.
- 113) 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종료하다.

4. 안건3 (부속병원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21학년도 본예산 자문)

- 1) 의장이 부속병원 2019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20학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2) 이규용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이 구리병원 2019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20학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다.
- 3) 3 의원이 코로나 병원측에서는 도움이 됐는지 묻다.
- 4) 이규용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이 환자가 많이 줄어서 병원은 마이너스라고 말한다.
- 5) 3 의원이 대학처럼 건물적인 부분을 보수시켜놓고 그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묻다.
- 6) 이규용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전출금은 매년 들어가며 올해 162억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24년이면 거의 200억을 보내게 된다고 답하다.
- 7) 3 의원이 전출 전입에 대한 구조는 똑같은 건지 묻다.
- 8) 이규용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이 맞다고 답하다.
- 9) 의장이 구리병원장례식장이 있는지 묻다.

- 10) 이규용 구리병원 기획실장이 있다고 답하다.
- 11) 의장이 거기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묻다.
- 12) 이규용 구리병원 기획실장이 임대료는 받지 못하고 있고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곳은 장례식장, 카페, 식당, 주차장도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답하다.
- 13) 의장이 의과대학에 교수평의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임대내장을 계약을 체결한다던지 할 때 그분들을 절차과정에 참여시켜 투명성을 제고하면 더욱 좋겠다고 말한다.
- 14) 이규용 구리병원 기획실장이 참고하겠다고 답하다.

5. 폐회

의장이 추가적으로 기타 논의할 사항이 더 있는지를 묻고, 2020년도 대학평의원회 제11차 회의 종료를 선언하다.


▣ 2020학년도 제11차 회의 결과 요약


안건 1. 대학평의원회 의원 구성 등 : 의결


안건 2. 한양대학교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21학년도 본예산 자문 : 자문 완료

안건 3. 부속병원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 및 2021학년도 본예산 자문 : 자문 완료


“끝”


대학평의원회 의 장 조태재 


부의장 신남호 


평의원 이동호 


평의원 이훈


평의원 계명찬 


평의원 오제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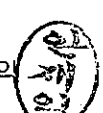
평의원 박경진 


평의원 안종길 

평의원 박종립 

평의원 박정연 

평의원 박세원 

평의원 안재익 

평의원 홍진원 

평의원 구자겸